

글로벌 예술교육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학교무용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제안

탁지현*

- I. 서론
- II. 글로벌 예술교육 플랫폼 사례 분석
- III. 한국형 학교무용교육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조적 제안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2023년 발표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연계 지원, 학생-예술가 연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문 인력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학교와 예술가 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지속적인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신체와 예술을 매개로 한 교육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확대와 달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교육 인력의 활동 기반은 예산과 사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고 있어 정책 목표와 현장 실행 사이에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국고 예산이 2023년 574억 원에서 약 86%가량 삭감된 8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국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강한님, 2025). 이후 2026년 지원 예산이 일부 복원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러한 변화만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예산과 사업구조의 변동이 반복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가 존재함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용은 전문적인 신체 경험과 움직임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학교교육에서는 체육, 예술, 문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jjeetark@hanmail.net

화예술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전문적인 매개인력의 확보가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학교무용교육의 질적 요소에 대한 연구(이슬, 최소빈, 2020)와 예술강사의 업무환경과 직무 관련 요인이 지속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경희, 최선, 최환석, 2013)는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예술강사의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전달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설계한 후 현장에 공급하는 하향식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교육 수요, 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축적하기에 한계가 있다. 김재준 외(2025)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개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중개기관의 핵심기능으로 ‘정책-현장의 언어 번역(Translation), 거버넌스 조정(Orchestration), 강사/기관/프로그램의 질적 기준 설정(Standard-setting), 역량 인프라(Capacity infrastructure)의 체계적 운영, 지속성 중심의 아카이빙과 데이터-학습(Data & Learning)’의 기능을 지녀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운영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재정 환경 변화와 예술교육 인력 및 지역 자원의 연결이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조은아, 2020).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을 단순한 온라인 통합 도구가 아닌 교육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기관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자 전문성 개발, 예술자원 매핑, 노동시장 정보 제공, 직무역량 표준화, 안전과 윤리 기준 제시, 학교와 예술기관의 연결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플랫폼 형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댄스 에듀케이션 라보라토리(Dance Education Laboratory, 이하 DEL)는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개발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지원하며, 아트룩맵(Artlook Map)은 예술교육 자원을 데이터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 캐나다의 컬처웍스캐나다(Culture Works Canada, 이하 CWC)는 문화예술 인력의 경력과 역량을 지원하고, 영국의 피플댄싱(People Dancing)은 직무표준과 안전·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블룸버그 아트스인턴십(Bloomberg Arts Internship, 이하 BAI)은 학교와 문화예술기관을 연결하여 청소년의 진로 및 현장 경험을 지원한다. 이들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매칭을 넘어 예술교육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고 전문성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개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행정체계, 재정구조, 예술강사의 활동조건,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는 성과뿐 아니라 제도적 맥락과 한계를 함께 분석하고 한국의 조건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무용 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용의 신체성과 교육적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플랫폼의 기술적 기능과 교육적 가치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한다(이해원, 2024).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예술교육 플랫폼의 운영 매커니즘을 비교·분석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재정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무용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교육 인력, 문화예술기관 및 정책 주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질적 문헌분석, 비교 사례 분석, 정책 설계를 결합한 문헌 기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예산안 및 관련 정책 보고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 및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여 정책과 현장 사이의 구조적 간극과 예술교육 인력의 불안정성, 교육자원과 수요의 분절 문제를 파악하였다. 글로벌 사례는 중개기관형 플랫폼의 핵심 기능¹⁾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DEL, Artlook Map, BAI, CWC, People Dancing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공통 분석 준거에 의거하여 비교하였으며, 이후 해외 사례의 기능을 한국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인력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이하 HRM), 수요-공급 매칭, 콘텐츠 관리 및 협력수업(Content/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CMS/LMS)의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K-Dance Net(가제)의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II. 글로벌 예술교육 플랫폼 사례 분석

본 장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예술교육의 질적 표준을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데이터로 해결하는 ‘중개기관형 플랫폼’의 모델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례 간 비교를 위해 일정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그 준거는 김재준 외(2025)가 제시한 중개기관의 핵심 기능을 토대로 하되, 실제 플랫폼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1)거버넌스 구조, 2)인적 자원 및 전문성 관리, 3)수요-공급 매칭, 4)교육 콘텐츠 및 아카이빙, 5)데이터의 수집·활용, 6)교육의 질·안전·윤리 관리, 7)경력 및 역량 개발, 8)운영 성과와 한계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 어떠한 기능이 핵심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능이 한국의 무용 교육에 적용될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장의 사례분석은 각 플랫폼의 장점을 단순히 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맥락과 기능적 특수성을 비교하여 K-Dance Net의 제안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탐색적 비교 분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 교육자 역량 표준화 및 커리큘럼 아카이빙 모델: DEL

DEL은 뉴욕시 교육부를 위해 전문성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업체로써, 1995년 조디 아놀드(Jody Arnhold)에 의해 설립된 이후 30년간 교육부와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모든 아이를 위한 무용(Dance for every child)’이라는 철학 아래 K-12 무용 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실천해왔다(Dance Education Laboratory, n.d.). DEL은 국내외 무용 교육자와 무용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기관, 지역 단체, 학교, 전문 무용단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컨설팅, 교육과정 개발을 제공한다. DEL 학생들은 협업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교(Empire State University)를 통해 대학 수준의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학점은 뉴욕주 교육부 교사의 급여 차이, 무용 자격 콘텐츠 요건을 충족시키고, 대학원 입학에 위한 전제 조건에 부합된다. 특히 2022년에 시작된 교사 자격증 프로

1) 구체적으로 ①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반 예술교육의 수요와 공급 연결, ②예술교육자의 전문성 관리·지원, ③데이터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조직·연결, ④교육의 질·안전·윤리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기준 제시, ⑤정부·학교·예술가·유관기관 등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구조 등을 충족시키는지를 포함한다.

그럼은 무용 교육자들에게 1:1 코칭, 멘토링, 최종 실습을 포함한 1년간의 과정을 제공하여 교육자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여기서 DEL 모델의 핵심은 라반 움직임 분석(Laban Movement Analysis, 이하 LMA)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 문장(Movement Sentence)’ 교수법과 ‘예술가-교사 파트너십’이다. ‘움직임 문장’ 교수법은 신체(Body), 에포트(Effort), 공간(Space), 관계(Relationship)의 네 가지 범주를 통해 무용 기술 습득을 넘어 신체 문해력을 함양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DEL의 모든 과정은 뉴욕시 교육부가 개발한 ‘예술에서의 교수·학습 블루프린트:무용, PreK-12학년(Blueprint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rts: Dance, Grades PreK-12)’²⁾에 연계되어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보관소(CMS) 운영을 통해 1,000개 이상의 표준 교안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이 이를 현장 맥락에 맞춰 재구성(Remix)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조를 지닌다.

DEL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는 예술가들의 교수 역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특히 팬데믹 이후 무용 문해력(Dance Literacy) 기반의 디지털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언어 및 소통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한다(Dance Education Laboratory, n.d.). 특히 DEL은 ‘기술 숙련보다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Teacher’s Heart)’ 강조한다. 이는 플랫폼 설계 시 단순한 기능 전수 위주의 강사 배치가 아닌, 교육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적 기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결국 NY DEL의 모델은 무용 교육이 지닌 ‘신체성(Embodiment)’과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전수 과정을 디지털 환경 안에서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공유를 넘어, 예술가의 신체 문해력이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화되고 공유될 수 있는 ‘예술적 매개’로서 플랫폼이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 준거에 따라 살펴보면, DEL의 핵심기능은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과 표준화된 교육 과정의 제공, 그리고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축적·공유하는 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교사 간 협력을 통해 현장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은 ‘표준화와 현장 자율성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 교육철학이나 표준이 플랫폼의 중심 기능으로 작동할 경우 교육의 다양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및 강사별 재구성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기반 예술자원 매핑 및 매칭 모델: 아트룩맵(Artlook Map)

시카고의 비영리 기구인 인제뉴이티(Ingenuity)가 운영하는 아트룩맵은 예술교육 자원의 분포와 접근성의 격차를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예술교육의 사막(Arts Deserts)’은 학교 또는 지역에서 예술교육 인력이나 프로그램 등 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간 예술교육 자원의 편차를 가시화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 플랫폼은 시카고 공립학교(CPS)의 600여 개 학교별 예술 자원 데이터와 550개 이상의 예술 단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한다. 특히 ‘창의 학교 인증제(Creative Schools Certification 2.0)’를 통해 각 학교의 예술

2) 이 블루프린트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무용 교육의 교육적 방향과 학습내용, 프로그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식 교육 프레임워크이다.

수업 시수, 강사 배치율, 지역사회 파트너십 수준을 5단계(Emerging to Excelling)로 등급화하여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와 행정가가 데이터에 기반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무용 분야에서도 발레, 현대무용, 힙합 등 세부 장르별 학교 배정 현황을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 매칭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시카고 예술교육의 현황과 지형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예술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탁지현, 2018, p. 231)”.

인제뉴이티의 성과 보고(Ingenuity Chicago, 2024)에 따르면, 아트룩맵을 활용한 지역에서는 예술 교사 배치율이 향상되었고, 약 96,000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질 높은 예술교육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각 학교의 ‘아츠 리아중(Arts Liaison)³⁾’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검증하는 ‘현장 중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 준거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단위의 예술교육 자원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에 활용하는 기능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장 담당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검증하는 구조는 플랫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학교가 스스로의 예술교육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학교무용교육에서도 지역별 무용 교육 인력과 학교의 수요를 가시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공개와 등급화가 교육기관이나 강사에 대한 경쟁과 서열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와 서열화보다 자원분포 및 수요 파악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인력의 경력 및 역량 관리 모델: CWC

캐나다의 문화예술 인적자원위원회인 CWC는 ‘문화예술 인력의 웰빙과 전문성 보호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근간’이라는 믿음 아래 문화예술 인력을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인적 자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즉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의 경력 설계와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CWC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예, 음악, 영화, 디지털 미디어, 출판, 문화유산 등 폭넓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며, 예술가와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인사관리(HR) 도구, 경력개발 툴킷(toolkit),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특히 ‘예술 분야의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Respectful Workplaces in the Arts)’ ‘예술가의 경력 관리법(The Art of Managing Your Career)’과 같은 실무 중심 자료들은 교육자, 창작자, 행정가에게 폭넓게 활용되며, 대학원생 실습 프로그램, 중간 관리자급 리더십 멘토링(Talent to Lead),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Young Canada Works) 등 실습 및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김세린, 2025).

CWC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노동시장 정보(Labour Market Information, 이하 LMI)’ 분석과 ‘역량 차트(Competency Charts)’이다. 이들은 무용 강사, 안무가, 기획자 등 세부 직무별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기능 단위로 표준화하여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직업 현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유급 인턴십

3) 시카고 공립학교(CPS) 시스템 내에서 각 학교의 예술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교사 또는 행정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 수요(수업 시수, 필요 장르 등)를 파악하여 아트룩맵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급자(교육청)와 수요자(학교) 사이에서 예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핵심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Ingenuity Chicago, 2024).

프로그램을 플랫폼상에서 운영한다. 이처럼 무용 강사를 위한 숙련도 프로필(Level 1~5)은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명확한 질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경력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데이터화된 역량’으로 증명하게 함으로써 직업적 신뢰성을 부여하고 예술가들의 직업적 안착을 지원한다.

CWC가 수행한 노동환경 관련 연구는 캐나다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경력과 고용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Hill Strategies Research(2024)가 CWC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예술가의 78%가 경력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을 경험했으며, 71%의 예술가가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적 필요와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부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예술가의 65%가 예술 분야에서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이 상호 연계된 경력 구조임을 보여준다.

CWC 사례의 핵심은 예술가를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자가 아닌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문인력으로 보고, 경력과 역량을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HRM 모듈이 단순한 강사 명단 관리가 아니라 경력, 직무역량, 전문성 개발 이력 등을 축적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역량을 수치화하고 단계화하는 방식은 전문성을 가시화하는 장점과 동시에 예술가의 다양성을 획일적 등급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급 중심의 서열화보다 자기기술과 경력 포트폴리오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4. 전문직 표준과 안전·윤리 모델: 피플댄싱(People Dancing)

영국의 피플댄싱은 4,5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로, 참여 무용(Participatory Dance)의 가치를 사회적 웰빙과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은 <표 1>과 같이 ‘국가 직업 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이하 NOS)’을 개발하여 무용 지도자가 경력 전반에 걸쳐 갖추어야 할 23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5가지 핵심 범주로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의 유무를 넘어 예술가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윤리적 책임,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Safeguarding), 그리고 안전한 신체 실천 기준 등 구체적인 기능을 명문화한 것으로, 예술가에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부족한 기술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 역

<표 1> 무용 지도를 위한 국가 직업 표준(NOS) 범주 분석(People Dancing, 2011 참조)

범주	핵심 내용 및 역량 단위	성격
Category A	잠재적 고객에 대한 무용 지도 경험 소통 : 시장 이해, 개인적 기술 및 맥락 지식 전달	필수 및 권장
Category B	커뮤니티 및 지원 조직과의 업무 관계 발전 : 프로그램 설계, 기대치 관리, 신뢰 구축	
Category C	효과적인 무용 지도 및 참여 실행 : 안전한 지도, 그룹 관리, 기술적 지식 시연, 타 장르 협업	
Category D	실천 평가 및 참여자의 성취 인식 : 영향 평가, 결과 소통, 참여자 인식 개발	
Category E	평가 결과 성찰 및 전문적 역할 발전 : 전문성 개발 필요성 인식, 자원 연구, 실행 성찰	

할을 하며, 고용주에게는 특정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지침이 된다(People Dancing, 2011). 이를 통해 예술가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고용주와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전문 행동 강령(Professional Code of Conduct)’은 커뮤니티 댄스의 핵심 가치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 기준으로 전환하여, 참여형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아트웍(ArtWork) 행동 강령과 일치한다. 특히 ‘안전한 신체 실천(Safer Dance Practice)’의 원칙을 강조하는 피플댄싱은 참여자의 부상 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물리적 환경 표준, 신체 관리 및 운영 지침, 신체 접촉 및 동의 등을 포함하는 ‘무용 분야 특화 안전 기준 및 신체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는 4.8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커뮤니티 무용 인구의 안전한 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People Dancing, n.d.).

피플댄싱은 분석 준거 가운데 교육의 질·안전·윤리의 기준 설정 및 관리 기능을 가장 명확히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무용지도자의 전문성을 기술적 숙련도에 한정하지 않고 참여자 보호, 안전한 신체 실천,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점은 학교무용교육 플랫폼의 질 관리 기준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형 무용 교육 플랫폼 설계 시, 예술가 개인의 평판 시스템이 교육적 역량뿐 아니라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과 윤리적 실천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자격의 절대적 서열로 작동하지 않도록 인증의 목적을 배제와 선발보다는 전문성 개발과 신뢰 형성에 두어야 한다. 결국, 플랫폼 내의 전문 역량 체계는 무용가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철학과 사회적 책무를 증명하는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육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무용 교육 생태계의 도덕적 근간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5. 예술교육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 BAI

앞선 사례들이 학교무용교육의 직접적인 플랫폼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면, BAI는 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예술교육 네트워크가 교육의 범위를 넘어 진로 및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후원하는 BAI는 예술 기관과 고등학생을 잇는 미국의 대표적 진로 체험 플랫폼으로, 본 연구의 고교학점제 연계 모듈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012년부터 뉴욕시를 포함한 7개 도시(2026년 8개 도시로 확장)의 문화기관에서 운영되는 여름 예술 인턴십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제 실무 경험과 직업 준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퀸즈 미술관(Queens Museum), 뉴욕 과학관(New York Hall of Science),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Studio Museum in Harlem), 링컨 센터(Lincoln Center) 등 다양한 비영리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만 16세 이상 공립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주 유급 인턴십을 매칭하고,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처럼 참여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형태로 현장 근무를 하며, 직장 내 필수 역량 워크숍, 대학 진학 준비 지원, 문화기관 투어, 전문가 패널 토론 등도 함께 제공받는다. 일반적으로 주 3~4일은 기관에서 실습하고, 주 1회는 워크숍 및 커리어 교육에 참여한다(Bloomberg Philanthropies, n.d.).

이 모델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기관을 탐색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운영기관·문화기관이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모집, 선발이 이루어지고, 선발 이후 적합한 기관으로 자동 매칭된다는 점에

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참여 기관들은 인턴십을 기관의 교육적 책무이자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어, 인턴의 역할과 업무, 멘토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교육 중심의 커리큘럼형 실습이 운영된다. 더 나아가 유급 인턴십을 기본으로 학생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관이 인턴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근의 BAI 관련 보고(Wolf, B., 2025)에 따르면, BAI 수료생의 60%가 대학 작문 보충수업 면제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였으며,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 평균 대비 30% 높게 나타나 인적 자본 형성의 효과를 입증했다. 본 사례는 향후 학교무용교육 플랫폼의 확장적 기능을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의 안정적인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향후 학교무용교육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글로벌 무용 교육 플랫폼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글로벌 무용 교육 플랫폼 사례 비교

사례명	국가	핵심 기능	거버넌스 특징	교육적 지향점	한국적 적용 가능성	주요 제약
DEL	미국	표준 교육과정, 교사 연수, 콘텐츠	교육청 협력	교육자 전문성	CMS/LMS, 연수	교육과정 획일화
Artlook Map	미국	데이터 시각화, 학교-단체 매칭	현장 중심 상향식 관리	접근성·형평성	무용 자산 매핑	서열화·데이터 편향
CWC	캐나다	직무 역량, HR, 경력 관리	국가 단위 인력 지원	고용 안정	HRM	역량의 획일화
People Dancing	영국	국가 직업 표준(NOS), 안전·윤리 가이드	전문가 네트워크	안전·사회적 책임	인증·안전 기준	자격 중심 배제
BAI	미국	학교-기관 연결, 인턴십	학교-기관 협력	진로·인적자본	학교-지역 문화기관 연계	안정적 재원 및 참여기관 확보

III. 한국형 학교무용교육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조적 제언

1. K-Dance Net의 설계 원칙

II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글로벌 플랫폼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번역(Translation), 분산된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조정(Orchestration), 교육의 질·안전·윤리를 위한 기준 설정(Standard-setting), 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역량 인프라(Capacity infrastructure), 그리고 교육 및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콘텐츠를 활용(Data & Learn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능을 한국의 학교무용교육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 인력 관리(HRM), 수요-공급 매칭(Matching), 콘텐츠 관리 및 협력수업(CMS/LMS)라는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조화하고, 여기에 지역 단위 데이터 관리와

전문성·안전·윤리 기준을 결합한 K-Dance Net(가칭)을 제안한다.

K-Dance Net은 단순히 예술강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교육 인력, 문화예술기관 및 정책 주체가 상호연결되는 디지털 거버넌스 허브를 지향한다. 따라서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 정보가 수요-공급 매칭에 활용되고, 수업과 콘텐츠에 관한 데이터가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순환적 구조를 갖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의 일방적인 자원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수요와 자원을 연결하고 축적하는 네트워크형 학교무용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 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 경력 관리 시스템(HRM 모듈)

기존의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등이 분절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강사 전문성 확인의 불확실성과 질 관리의 부재”(탁지현, 2018)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 통합 인적자원 관리(HRM)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CWC의 경력 및 역량 관리체계와 아트룩맵의 지역 단위 예술 자원 매핑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지역적 분포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가. 무용 자산 매핑(D-Asset Mapping)

아트룩맵의 지역 단위 예술 자원 매핑과 CWC의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정보체계를 결합하여, 광역/기초 단위별 무용 교육 인력의 세부 전공, 교육 경력, 직무 역량, 활동 지역 등을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및 지역 단위의 무용 교육 수요와 가용 인력의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별 인력 부족 및 교육 자원 편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 역량 기반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발급

대학 전공 학위뿐만 아니라 DEL 방식의 보수 교육 이수 이력, 학교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 교육 경력, 안전·윤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세분화하여 ‘검증된 디지털 배지’로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 유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술가의 실질적 직무 역량(Competency)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탁지현, 2025).

다만 디지털 배지는 강사의 전문성을 단일한 점수나 등급으로 환원하는 평가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형 이력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지 취득 여부가 강사 간 서열화와 배제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전문성 확인을 위한 최소 기준과 개인의 다양한 경력, 교육철학 및 활동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병행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의 가시화와 교육자의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수요 기반 지능형 매칭 시스템(Matching 모듈)

2026년부터 추진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핵심인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에 대응하여, K-Dance Net은 학교와 지역의 무용 교육 수요를 가용한 교육인력 및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수요 기반 매칭 시스템

을 구축한다. 이 모듈은 아트룩맵 사례에서 확인한 데이터 기반 자원조정의 기능을 학교무용교육의 맥락에 적용한 것으로, 단순히 가까운 강사를 연결하는 기술적 매칭을 넘어 지역별 교육수요와 인력자원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한다.

매칭 기준은 거리와 시간 등의 편의적 조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특성, 학습자의 연령과 특성, 강사의 전공 및 교육 경험, 수업 내용, 안전·윤리 관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및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자와 프로그램이 연결되도록 하는 수요-공급 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가. 늘봄 바우처 및 제로페이 결제 연계

<표 3>의 예시와 같이 초등 3학년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플랫폼 내에서 모바일 간편결제와 연계한다. 학부모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무용 교육자의 프로필과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수요자가 직접 강사를 선택하여 결제하는 Bottom-up 방식의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다만 수요자의 선택권이 교육적 질 관리의 책임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플랫폼에 등록되는 강사와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교육역량,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학교 및 지역 교육행정 주체가 교육적 책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플댄싱의 사례에서 확인한 기준 설정 기능을 한국의 학교무용교육 환경에 적용한 것이다.

<표 3> K-Dance Net 바우처-제로페이 연계 구조(안)

단계	주체	활동 내용	시스템 연동(API)
1. 대상 확정	학교/교육청	늘봄 바우처 지급 대상(초3 등) 확정 및 명단 업로드	나이스(NEIS) 연동
2. 포인트 지급	학부모	플랫폼 내 바우처 신청→연50만원 포인트 수령	제로페이 모바일 지급
3. 수요자 선택	학부모/학생	지역 내 무용 교육자 프로필 및 커리큘럼 검색	CMS 콘텐츠 필터링
4. 결제 및 예약	학부모	원하는 수업 선택 후 결제 시스템 연계	전자적 정산 체계
5. 정산 및 환류	지자체/플랫폼	수업 이수 데이터 확인 후 강사로 실시간 자동 정산	지능형 정산 엔진

4. 무용 문해력 콘텐츠 아카이브 및 협력 수업 워크스페이스(CMS/LMS 모듈)

CMS/LMS 모듈은 DEL 사례에서 확인된 교육과정의 표준화, 교사 전문성 개발, 콘텐츠 아카이빙 및 예술가-교사 협력 기능을 한국의 학교무용교육 환경에 적용한 것이다. 특히 학교무용교육의 질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강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수업자료, 수업 실행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제안은 무용 교육 콘텐츠를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학교 교사와 외부 무용 예술가가 교육적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협력적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LMA 기반 댄스 리터러시 리소스

DEL의 표준 커리큘럼을 벤치마킹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과 정합성을 갖춘 ‘무용 읽기’ 콘텐츠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AI 기반 안무 보조 프로그램 등 디지털 무용 도구를 활용한 융복합 교안을 포함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는 무용 문해력(Dance Literacy) 기반 교안과 디지털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몸을 지향하는 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가능하게 한다.

나. 협력 수업 및 질적 기록 도구

학교 담임교사와 외부 무용 예술가가 온라인상에서 공동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실시간 협업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예술가와 교사가 교육적 목표를 공유하며 학생의 신체적 성장을 맥락적으로 기록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질적 근거를 마련"(이명섭 외, 2018: 39)하는 협업 LMS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K-Dance Net의 운영 조건 및 정책적 과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기술적 편의를 넘어, 하향식 공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적 거버넌스’의 실천적 제안이다. 특히 무용예술가의 전문성을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하여 가시화함으로써 교육생태계의 자생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제안한 플랫폼 구성이 실질적인 생태계의 방파제가 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몇 가지 정책적 과제들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데이터 연결뿐 아니라 지역의 교육·문화 자원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버넌스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은 인적 연결을, 오프라인의 대표적 예가 되는 ‘꿈꾸는 예술터’는 공간적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온라인의 데이터가 지역 자율 협의체와 결합할 때,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 자원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하는 자생적 거버넌스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CWC의 ‘주정부 자문위원회(PATAC)’ 모델을 참고하여(Culture works Canada, n.d.), 2026년 추진되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협의체’의 지역 단위 거버넌스에 플랫폼 데이터를 연동하여 지역별 무용 교육 사각지대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하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거점(꿈꾸는 예술터)을 활용하여 플랫폼 내 소규모 연구 모임과 지역 특화형 무용 프로젝트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중앙 정부 예산 삭감의 파고를 지역 단위의 자생적 자산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빅 데이터는 향후 무용 교육 정책 수립과 자원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트룩맵 사례처럼 지역별 무용 강사 배치 현황, 시설 이용률, 학생 만족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학적 행정을 도모해야 한다. 예컨대 무용 교육 수요는 높으나 강사가 부족한 사각지대를 데이터로 추출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강사 및 학교 관련 데이터는 평가와 서열을 위한 수단보다 교육자원 배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관리 원칙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CWC의 가치관인 ‘문화 인력의 웰빙과 전문성 보호’를 기조로 삼아 플랫폼 참여 예술가들의 고용 지위 보장을 위해 ‘예술활동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생계 위기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6.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

이상과 같이 제안한 K-Dance Net의 초기 적용 범위는 학교무용교육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향후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이 확대될 경우 교육과 진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학교와 문화예술기관을 연결하여 청소년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BAI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AI의 유급 인턴십 구조를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의 지속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예술 경험이 교육 이후의 진로 및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확장 경로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기관 간 현장 경험 연계는 CWC가 강조하는 ‘현장 실습 통합 교육(Work-Integrated Learning)’ 및 학교에서 업무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의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등학교의 무용 진로 교육, 지역 무용단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현장 경험, 예비 예술교육자의 실습 및 멘토링 등으로 플랫폼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확장은 학교무용교육이라는 본래의 공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참여기관의 인프라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글로벌 무용 교육 플랫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글로벌 플랫폼은 예술교육 인력과 수요, 콘텐츠와 데이터를 연결·조정하는 중개기능을 통해 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기능을 한국의 학교무용교육 맥락에 적용하여 ‘K-Dance Net’ 플랫폼을 인력 관리(HRM), 수요-공급 매칭(Matching), 콘텐츠 관리 및 협력수업(CMS/LMS)의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조화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 기반 인력 및 수요 데이터의 연계, 역량 기반 디지털 배지, 무용 문해력 콘텐츠, 질·안전·윤리 기준 등을 주요 설계요소로 제안하였다. 셋째,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예술교육 인력의 사회적 안전망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진로교육과의 연계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 교육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교육인력, 수요, 콘텐츠, 데이터의 연결과 거버넌스의 관점

에서 재구성하고, 글로벌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한국의 학교무용교육 맥락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된 정책자료와 플랫폼 운영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기반 연구로서, 향후 면담, 델파이 조사 및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타당성과 실천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명섭, 김학미, 이윤진, 정윤리, 최미현, 고은정, 고민성(2018).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실천편**. 에듀나티.
- 김재준, 차상권, 최창준, 안지언(20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의 역회전 모델 : 악순환 구조 분석과 중개기관 전환을 위한 체계적 개혁 방안. **모드니 예술**, 23, 63-84.
- 이경희, 최선, 최환석(2013). 예술강사의 업무환경과 직무요인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2(3), 51-79.
- 이슬, 최소빈(2020). IPA 기법을 활용한 학교무용교육의 좋은 수업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78(2), 1-20.
- 이해원(20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4(1), 143-152.
- 조은아(2020).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6가지 성공조건- 4.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제2호**, 24-31.
- 탁지현(20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질적 개선 방안 모색: 무용 분야의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217-235.
- 탁지현(2025). 미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향방에 관한 논고: 무용 교육 매개인력 중심 논의. **모드니 예술**, 22, 49-65.
- 강한님(2025. 04. 22). “‘문체부 0원 추정’ 학교 예술강사들 생계 위기 현실로”.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4>, 2026. 03. 10>.
- 김세린(2025. 06. 23).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생태계를 향한 공동의 노력, 컬처웍스캐나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인력 양성 대담”. **아르떼365**. <<https://arte365.kr/?p=109900>, 2026. 03. 11>.
- 교육부(2026).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추진 방안 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 Bloomberg Philanthropies(n.d.). <<https://www.bloomberg.org/>, 2026. 04. 26>.
- Culture Works Canada(n.d.). <<https://cwc-coc.ca/>, 2026. 03. 01>.
- Dance Education Laboratory(n.d.). <<https://www.danceedlab.com>, 2026. 03. 01>.
- Hill Strategies Research(2024). *How are Canada’s artists doing? Analysis of a survey of afford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in early 2024. Report prepared for the 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https://cwc-coc.ca/sites/default/files/research/arts2024/CHRC-KellyHill-artists-analysis-2024.pdf>, 2026. 09. 02>.
- Ingenuity Chicago(2024). *State of the Arts in Chicago Public Schools: Progress Report 2017-18*. <https://www.ingenuity-inc.org/wp-content/uploads/2020/10/Ingenuity_State-of-the-Arts_2017-18.pdf, 2026. 3. 29>.
- People Dancing(2011).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Dance Leadership*. <<https://www.communitydance.org.uk/public/12013/NOS%20in%20Dance%20Leadership.pdf>, 2026. 3. 28>.

People Dancing(n.d.). <<https://www.communitydance.org.uk/>, 2026. 03. 02>.

Wolf, B.(2025.6.18.) “The Bloomberg Arts Internship Opens Up An Industry To Vital New Talent”.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benjaminwolff/2025/06/18/the-bloomberg-arts-internship-opens-up-an-industry-to-vital-new-talent/>, 2026. 03. 20>.

논문투고일 2026. 08. 09.

심 사 일 2026. 08. 19.

심사완료일 2026. 09. 16.

A Proposal for a Network Platform Model for Sustainable School Dance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Arts Education Platforms

Tark, Jee Hyun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network platform model to sustain school dance education amid changes in arts education policy and funding structures. Moving beyond previous research on the instability of education mediators, it conducts a qualitative document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five global platforms: DEL, Artlook Map, CWC, People Dancing, and BAI.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develops “K-Dance Net”,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modules: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demand-supply matching, and content/learning management system(CMS/LMS). The model integrates regional resource mapping, competency-based digital badges, dance literacy content, and artist-teacher collaboration while incorporating quality, safety, and ethical standards. It also proposes regional governance, data-based administration, and social safety nets for arts educators. By shifting from centralized provision to networked governance,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school dance education ecosystem.

Keywords: Culture and Arts Education(문화예술교육),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Network Platform(네트워크 플랫폼), Governance(거버넌스), Intermediary(중개기관)